

일본 미에현 등 3개현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지 추가 중지

일본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지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 관계당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돗토리현과 오카야마현, 가가와현 등 3개 현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중지한데 이어, 10월1일부터 미에현과 시마네현, 코우치현 등 3개 현을 추가로 백신접종 중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이 중지된 현은 6개로 늘어났다. 일본은 내년 4월에는 26개 도도부현에서 추가로 백신접종 중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96년부터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내년 10월1일부터 전국에서 백신접종 중단을 목표로 적극적인 박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량 31% 증가

- 8월까지 돼지고기 41만톤 수입

일본은 8월말까지 총 408,268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중 냉장육은 26.6%인 108,415톤이고, 냉동육은 73.4%인 299,853톤이다. 국별로는 덴마크가 128,188톤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108,393톤, 캐나다 59,408톤, 한국 52,473톤, 멕시코 24,401톤의 순이었다.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31% 증가한 것인데, 덴마크가 전년 동기에 비

해 78.3%, 캐나다가 55.1%, 멕시코 21.8%, 미국 4% 증가한 반면, 한국은 6.8% 감소했다.

<표>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현황(99.1~8)

(단위 : 톤, ()안은 전년비 %)

구분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국	멕시코	합계
냉장육	195	71,941	16,998	14,141	3,761	108,415
냉동육	127,993	36,452	42,410	38,332	20,640	299,853
합계	128,188 (178.3)	108,393 (104.0)	59,408 (155.1)	52,473 (93.2)	24,401 (121.8)	408,268 (131.0)

배합사료 가격 톤당 1,100엔 인하

일본 전농(농협)은 금년 10월부터 12월에 적용되는 배합사료 가격을 전국 전축종 평균으로 톤당 1,100엔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흑돈 및 흑돈 생산농장 증명사업 개시

일본 종돈등록협회는 지난 9월 흑돈 생산자의 불신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흑돈의 증명서 발급 및 생산농장 증명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자격요건으로 흑돈은 버크셔종의 혈통증명돈(자돈등록돈, 종돈등록돈, 예비등록돈)으로 흑돈 생산농장의 증명취급 규격에 따라 지정된 농장의 번식돈 사이에서 생산된 것으로 자돈 등록 및 생후 30일 이내에 신고한 것이어야 한다.

미 9월 돼지 사육두수 1년전보다 4.3% 국 감소

미농무부(USDA)는 9월1일 현재 미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총 6,070만두로 1년전의 6,340만두보다 약 4.3% 감소했으며, 97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모돈두수는 총 630만두로 전년보다 약 8%가 감소했으며, 총 사육두수에서 모돈두수를 뺀 비육돈의 사육두수는 5,444만두로 1년전보다 4% 감소했다.

생돈 가격은 남부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파운드당 36.63달러로 1년전보다 약 4.62달러가 상승했다. 또한 10월의 돼지 도축두수는 1년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도축두수의 감소로 인해 몇몇 품목은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돼지고기 수출량 9% 감소

-대만 제3위 수출국으로 부상

미농무성에 따르면, 미국은 상반기중 189,912톤의 돼지고기와 372,851톤의 쇠고기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9% 감소한 반면, 쇠고기는 10% 늘어난 양이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모두 일본에 가장 많은 양(돼지고기 92,976톤, 쇠고기 181,642톤)을 수출했으며,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은 46,441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2.5배 증가했다.

미국은 상반기중 대만에 15,875톤의 돼지고기를 수출, 대만이 일본과 캐나다에 이어 제3위의 돼지고기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대만은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태풍으로 돼지 3만 두 폐사

9월 중순 미 동해안을 휩쓴 태풍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를 중심으로 축산농가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9월30일까지 집계된 노스캐롤라이나주 피해상황 속보치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돼지 3만5백두, 소 880두, 닭 211만수, 칠면조 74만수가 폐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축사가 유실되고 작물이 피해를 입어 총 피해액은 1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품안전기관 통합 추진

미국의 더빙 상원의원 등 22명의 상하원 의원들은 식품의 안전과 검사, 감시기관인 USDA(미 농무부), FDA(식품의약국) 등 10여개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식품의 안전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을 '식품안전국'을 만들어 통합하고,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스미스필드사, 미국내 돼지고기시장 12% 점유

-머피 패밀리 팜스사 인수에 따라

올 7월까지 6백9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미국 제1의 양돈업체인 스미스필드사가 최근 미국 제2의 양돈업체인 머피 패밀리 팜스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 양돈업계의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합병이 결정된 머피 팜스사는 올 1월 업계 4위였던 스미스필드사가 2위의 캐롤스 푸드(18만3천두)사를 합병해 업계 1위로 올라서기 전

까지 미국 최대의 양돈업자의 자리를 고수해 왔던 업체로서, 그동안 번식용 모돈 32만5천두를 보유해 연간 550만두의 비육돈을 주로 스미스필드사에 출하해 왔다.

스미스필드사의 머피 팜스사 인수가 실현되면, 스미스필드사의 사육규모는 2배로 늘어나게 되며, 세계 최대의 도축업자이기도 한 동사는 자신의 처리두수중 60%를 자사 농장에서 보유하게 된다. 한편, 업계 1위와 2위의 합병에 따라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12%를 스미스필드사가 점유하게 되었다.

E 돼지고기 민간재고 보조 해제

98년 하반기 폭락한 돼지고기 가격안정 대책으로 EU가 지난 98년 9월부터 발동해, 최근 계약수량까지 약 42만톤에 달하는 돼지고기를 사들인 돼지고기 민간재고 보조금 발동이 지난 9월14일부터 해제되었다.

EU 돈육관리위원회는 최근의 돼지고기 가격이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 99년 6월경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최근 EU 돼지 지육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9월5일 현재 EU의 돼지 지육 가격은 100kg당 128유로로, 가격이 가장 낮았던 98년 11월 88유로에 비해 45.5%(40유로) 상승하였다.

EU 가축 폐기물 처리규정 새로 마련

EU농업위원회는 지난 8월 전염성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원인이 될 위험성이 있는 모든 포유류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에 관한 수위위생상 기준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식용 목적이 아닌 부산

물은 133°C 이상의 가열처리 및 3bar 이상의 가압처리를 20분 이상 할 의무가 부과된다. EU 농업위원회는 이 기준을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규칙에 대해 대부분의 EU 가맹국은 찬성하고 있으나, 독일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뼈에 열처리 및 가압처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도 식품에 가압처리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4/4분기 돼지 사육두수 감소 전망

EU 통계국은 99년 4월 현재 EU에서의 돼지 사육두수 및 2000년 3월까지의 돼지와 도축두수에 대한 속도치와 추정치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독일을 제외한 돼지 사육 8개국의 4월 현재 총 사육두수는 8,178만두로 작년 동기에 비해 1.5%가 증가하였으나, 번식용 암돼지의 사육두수는 846만두로 작년 동기에 비해 2.7%가 감소, 앞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EU 15개국의 98년 4/4분기 돼지 및 도축두수는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가 증가하였으나, 99년 들어 신장이 둔화되어 4/4분기 이후에는 작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EU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돼지의 생산증가를 배경으로 97년 여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98년 11월 최저가격을 나타냈으나, 수차에 걸친 돼지고기 수출보조금 인상과 민간재고보조의 대책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다.

덴마크 다이옥신 영향으로 돼지가격 상승 -도매가격 kg당 1.5크로네 상승

덴마크 돼지가격이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 파동 여파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덴마크는 98년 하반기에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금년들어 상승세를 보여 6월에는 도매가격이 kg당 7.1크로네로 1/4분기에 비해 1.1크로네 상승했다.

그러나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비롯한 식육 전반에 걸쳐 다이옥신 오염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나라에서 수입금지조치를 내리고 있어 최악의 경우 60~70만톤의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덴마크산 돼지고기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다이옥신 파동 이전에 비해 kg당 1.5크로네 상승, 덴마크 전체로 연간 총 15억크로네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브라질 러시아 비행기와 돼지고기 바터 교역

브라질 돼지고기 수출업자들은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신용장을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을 하고 있다.

브라질돈육수출협회는 브라질 공군용으로 사용할 러시아 비행기와 브라질산 돼지고기를 바터무역형식으로 거래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 은행은 이와같은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신용면에서 특별한 루트를 개척하고, 브라질 돈육생산자들의 이익도 도모하고 있다.

연간 50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러시아는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서 일본 다음으로 2번째 수입국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외환위기로 브라질은 금년 1/4분기중 러시아에 15.8% 감소한 돼지고기를 수출했으며, 대금결제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했었다.

캐나다 미국산 돼지 수입 허용

미 농무부는 10월7일 캐나다가 빠른 시일안에 미국산 돼지의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98년 12월4일 미국과 캐나다의 전반적 농업협정 체결 이후, 캐나다는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미국의 37개주산 돼지 수입을 위해 동물 건강 규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해왔다.

미국은 만약 이 개정안이 채택되어 돼지 수출길이 열리면 오는 2000년에는 약 4백만불에 해당하는 5만마리의 돼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미국산 돼지 수입 허용은 캐나다 돼지 도축장 개방이라는 의미와 함께, 미국에게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벨기에 가축사료에 오물질 사용 인척

벨기에 정부는 자국내 가축사료에 화장실 정화물질과 도축후 발생하는 폐기물이 사용되었다는 독일 신문의 고발 보도와 관련,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벨기에 농업부장관은 TV 인터뷰를 통해 누가 오물질을 가축사료에 첨가해서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며,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도 오물질을 가축사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오물질을 가축사료에 공급한 도축장 3곳과 젤라틴 생산 공장이 98년말과 올해 초까지 오물질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지금은 공급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양돈**

